제1강 『판단력 비판』 입문

[1교시]

▲ 『판단력 비판』의 핵심 개념

▶ 비판 Kritik – 능력들에 대한 한계 규정

칸트는 '비판'이라는 말을 '한계 규정'이라는 의미로 쓴다.
Kritik라는 말은 '구별하다', '판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krinein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Kritik는 '구별함', '판정함' 을 의미하는데, 구별하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또는 대상이 되는 주제)의 옳고 그름, 정당성과 부당성 등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로부터 Kritik란 일반적으로 '타당성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함' 이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은 특히 칸트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인식능력 일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인식능력이 곧 존재규정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형이상학 비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 즉, '이성능력 일반에 대한 비판'은 곧 형이상학 일반의 가능성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는 '형이상학의 원천·범위·한계 등을 규명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판단력 Urteilskraft –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지성과 판단력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시기나 서술의 맥락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우선 제1비판서에는 지성능력과 판단력이 거의 동일한 능력으로 다루어지되, 판단력에 관해서는 특별히 도식의 능력이 첨가된다.

☞ 즉, **동일한 개념능력(또는 판단능력)인 지성이 한편으로는 범주능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식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력 비판』**에서는 지성과 판단력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지성은 단지 보편의 능력(개념의 능력)으로 한정되고 그래서 범주 능력으로만 규정되는데 반해 판단력은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됨으로써 감성적인 것들(감관내용과 상상력이 종합한 것들)을 지성(또는 이성)과 매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 **개념 Begriff – 多者를 一者로 결합한 것**

일반적으로 감각적 다양을 '파악함, 움켜쥠'을 말한다.
따라서 일자규정, 즉 **다양한 것을 어떤 하나의 규정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흰색, 정육면체의 결정, 짠맛 등의 감각적 다양에 대해 '소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개념은 그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험적 개념과 순수 개념으로 구분된다.

▲ **『판단력 비판』의 구조 –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비판**

Kritik이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대로 **인식능력들의 원천, 범위, 한계를 규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의 제목은 '판단력의 원천, 범위, 한계를 규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칸트는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이며,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미 보편·기준이 주어져 있는 규정적 판단은 판단력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
『판단력 비판』은 오직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조건에 대해 다룬다.
따라서 『판단력 비판』은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력 비판』은 제1부 <감성적 판단력의 비판>, 제2부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합목적성의 원리를 쾌의 감정과 결합시킬 때 등장하는 판단력의 원리를 다루고, 후자는 합목적성의 원리를 논리적 사유(이성사유)와 결합시킬 때 등장하는 판단력의 원리를 다룬다.

【임마누엘 칸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교시]

목적론적 판단력

▲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

· 규정적 판단력이란 보편이 주어진 경우의 판단력
· 반성적 판단력이란 보편이 없는 경우 보편을 찾아서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판단력

따라서 규정적 판단력은 자체의 원리(판단하는 원리)는 없고, 지성(또는 이성)이라는 개념 능력 일반의 원칙에 종속된 활동만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반성적 판단력은 의존해야할 개념(보편)이 없으므로 자체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 원리를 칸트는 '합목적성'으로 규정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판단력 비판』의 집필의도

칸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판단력 비판》은 본래 자연과 자유사이에 놓인 커다란 심연을 매개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칸트는『순수이성 비판』을 통해 인식을 감성계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런 제한을 통해 얻어진(소극적) 효용은 사변이성으로 하여금 경험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동시에 도덕영역의 확보라는 적극적 효용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세계를 엄밀한 과학 법칙이 적용되는 합법칙성으로써의 감성계와 자유개념에 근거한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초감성계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매개가 요청되는데 바로 이런 요청에 부응해 양자의 매개 원리를 밝히기 위해 쓴 것이《판단력 비판》이며, 이 매개의 원리가 합목적성이다.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고찰되는 학(學)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미학이며, 다른 하나는 전 자연의 존재자들을 목적들의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적론이다.
칸트는 이 두 영역 가운데 특히 미학이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판단력 비판』의 두 부분에 대한 평가

『판단력 비판』은 '감성적 판단력의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이라는 두 항목, 즉 미학과 목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자에 따라 전자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후자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혹은 양자를 통일적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미학에 주목하여 판단력 비판을 해석한 이론은 코헨과 오데브레이트가 대표적이다.
코헨에 따르면 미학은 이론철학 및 실천철학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제 3의 학문이며, 오데브레이트는 미학과 목적론의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목적론에 주목한 경우로는 슈타들러와 매클린을, 통일적 관점에서 해석한 경우로는 호르크 하이머와 바르투샤트와 패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 들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역시 **반성적 판단력과 그 원리인 합목적성 개념**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